

2024년 1월 2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반등 국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한국 증시는 1) 월말 1월 FOMC 경계심리 상존에도, 2) 미국 4분기 GDP, PCE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 3) BOJ 및 ECB 통화정책회의, 4) 넷플릭스, 테슬라 등 미국 기업 실적, 5)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주가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40~2,550pt).

금주 예정된 4분기 GDP, 12월 PCE 물가, 1월 제조업 PMI 등 주요 지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또 다시 변하거나, 침체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음. BOJ와 ECB 회의, 차주에는 1월 FOMC 등 중앙은행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답다운 측면에서는 한국, 미국 증시 모두 위험선호심리의 추가 확산을 이끌 만한 동력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가능성 상존. 하지만 한국 증시는 1월 이후 상대적으로 여타 증시에 비해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주가 회복력은 금주에도 유효하게 생성될 것으로 판단. 금주에는 최근 증시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AI, 반도체 등 주요 IT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매크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연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1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코스피는 중동, 중국-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원/달러 환율 약세, 미국 소비 및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이 하방압력을 가하며 3주 연속 하락 (KOSPI -2.07%, KOSDAQ -2.93%)

15일(월)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생산자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 큰 이변이 없었던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도, 바이오, 이차전지, 엔터 등 코스닥 중심의 매도 물량이 출회 됨에 따라 혼조세로 출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의 미국 선박 공격,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전환한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를 유발하면서 급락 마감. 또한 중국의 MLF 금리 예상 밖 동결 (시장 기대치는 10bp 인하)로 인해 촉발된 위안화 약세 및 중화권 증시 급락 역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

경제지표 단에서는 미국 12월 소매판매 MOM 0.6%(예상 0.4%, 전월 0.3%), 자동차 제외 근원 소매판매 MOM 0.4%(예상 0.2%, 전월 0.2%)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로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1%대까지 상승, Fed Watch 상 3월 금리인하 전망은 일주일 사이 55%까지 하락.

18일(목) 낙폭과대 인식 속 긍정적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TSMC, 아이폰 수요 개선 전망에 따른 애플 투자 의견 상향 등 반도체, AI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미 증시에 힘입어 상승. 지수 상승폭은 제한되었으나, 개별 종목 단에서 이차전지, 변압기, 화장품, AI, 온디바이스 등이 거래대금 및 상승률 관점에서 반등 강도 상위.

업종별로 전기전자(+0.09%) 만이 강세, 음식료품(-6.44%), 섬유 의복(-6.07%), 철강금속(-5.63%), 보험(-5.18%), 화학(-5.17%)의 낙폭이 가장 컸음.

외인(-5,600억원)은 전기전자(+657억원), 의약품(+518억원), 기계(+407억원), 통신업(+221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5,765억원)은 보험(+109억원), 금융업(+45억원), 의료정밀(+38억원), 종이목재(+23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월 22일	월	중국	인민은행(PBOC) 대출우대금리	1월	4.2%	4.2%
		한국	수출 1~20 일(YoY)	1월	-	13.0%
		한국	수입 1~20 일(YoY)	1월	-	-9.2%
	회의	BOJ 통화정책회의(22~23 일)				
1월 23일	화	미국	선행지수 (MoM)	12월	-0.3%	-0.5%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12월	-	0.6%
	실적	베이커휴즈,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제네럴일렉트릭, 록히드마틴, DR 호턴				
1월 24일	수	미국	리치몬드 제조업지수	1월	-	-11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잠정)	1월	-	99.5
	독일	HCOB 제조업 PMI (잠정)	1월	-	43.3	
		HOCB 서비스업 PMI (잠정)	1월	-	49.3	
	EU	HOCB 제조업 PMI (잠정)	1월	-	44.4	
		HOCB 서비스업 PMI (잠정)	1월	-	48.8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	1월	48	47.9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	1월	51	51.4	
	실적	ASML,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넷플릭스, 다나허, AT&T				
	1월 25일	목	한국	GDP (QoQ)	4분기	0.7%
한국			GDP (YoY)	4분기	2.2%	1.4%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월	-	86.4
미국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12월	-	0.03	
		GDP (QoQ) (4분기, 추정치)	4분기	1.5%	4.9%	
미국		근원 내구재수주 (MoM) (잠정)	12월	0.1%	0.4%	
실적		테슬라, 램리서치, 보잉, 넥스트에라에너지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4.50%	4.50%	
1월 26일	금	미국	신규 주택판매 (MoM)	12월	10.1%	-12.2%
		미국	개인소득 (MoM)	12월	0.3%	0.4%
		미국	개인소비지출 (MoM)	12월	0.4%	0.2%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oM)	12월	0.2%	0.1%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YoY)	12월	3.0%	3.2%
		미국	PCE 물가지수 MoM	12월	0.2%	-0.1%
		미국	PCE 물가지수 YoY	12월	2.6%	2.6%
	실적	마스터카드, 비자, 인텔, 세브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월말 1월 FOMC 경계심리 상존에도, 2) 미국 4분기 GDP, PCE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 3) BOJ 및 ECB 통화정책회의, 4) 넷플릭스, 테슬라 등 미국 기업 실적, 5)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추가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40~2,550pt).

19일(금) 미국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차단 발언이 이어졌으나, 1월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심리 개선, 애플(+1.6%) 및 엔비디아(+4.2%)와 같은 AI 및 테크주 강세 등에 힘입어 나스닥을 제외하고 신고가를 경신(다우 +1.1%, S&P500 +1.2%, 나스닥 +1.7%).

“인플레이가 낮아져야 금리인하 할 것”이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이날에도 주요 위원들은 3월 금리인하 기대감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모습. 그 여파로 Fed Watch 상 3월 인하 확률(46.2%)보다 동결 확률(52.9%)이 우세해졌으며, 연내 컨센서스도 6회에서 5회 인하로 옮겨진 상황. 이 같은 컨센 변화는 미 증시 조정을 초래할 법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월 시작 + 6회 인하” 전망이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었으며, 최근 증시 상단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연준의 정책을 둘러싼 시각 변화는 1월 FOMC를 넘어 3월 FOMC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동시에 인플레이 및 경기 침체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또한 시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 우선 미국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9%(컨센 3.1%)을 하락했으며, 1월 소비심리지수도도 78.8(컨센 70.0)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상기 과제를 풀어나가는 부담을 덜어준 상황. 달리 말해, 1) 2% 목표를 향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겠지만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2)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도, 과거 인하 사이클처럼 증시 하락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로 치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

물론 금주 예정된 4분기 GDP, 12월 PCE 물가, 1월 제조업 PMI 등 주요 지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또 다시 변하거나, 침체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음. 금주에는 BOJ와 ECB 회의, 차주에는 1월 FOMC 등 중앙은행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매크로 측면에서는 한국, 미국 증시 모두 위험선호심리의 추가 확산을 이끌 만한 동력이 부재할 가능성 상존.

하지만 한국 증시는 1월 이후 여타 증시에 비해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추가 회복력은 금주에도 유효하게 생성될 것으로 판단. 최근 증시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AI, 반도체 등 주요 IT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매크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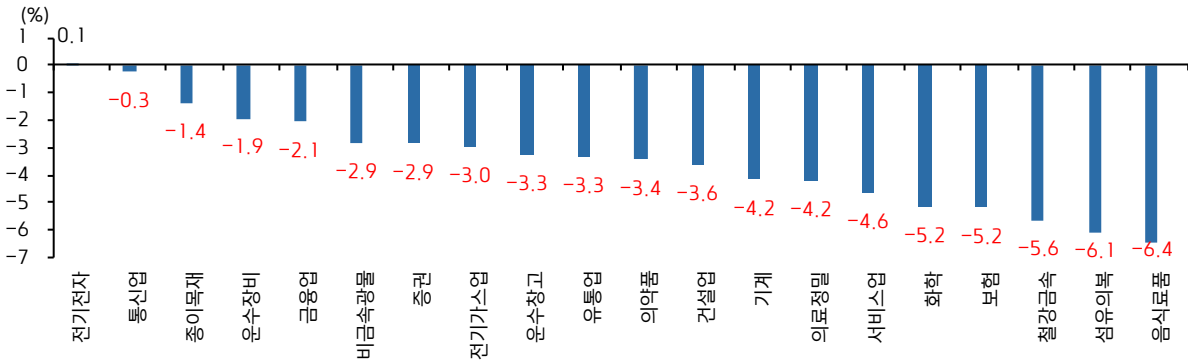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했던 TSMC가 지난주 증시 반등의 키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금주에는 인텔, 램리서치,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 실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 미 10년물 금리가 4.1%대에서 상단이 제약된 가운데, 금리 민감도가 높았던 넷플릭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OTT 플랫폼, 바이오와 같이 성장주들의 실적도 주중 증시 회복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이차전지주들은 연초 이후 추가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급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다만, 24일(수) 발표 예정인 테슬라의 실적 및 컨퍼런스콜 결과에 따라 과거처럼 추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주가의 움직임도 팔로우업 할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472.74	1.3	-2.1	-3.7	-6.9
대형주	2,457.97	1.6	-1.9	-3.5	-7.3
중형주	2,627.99	0.0	-2.7	-5.0	-5.7
소형주	2,252.95	0.7	-1.4	-1.3	-1.5
코스피200	332.99	1.8	-1.6	-3.2	-7.0
코스닥	842.67	0.3	-2.9	-1.8	-2.8
대형주	1,899.59	-0.8	-5.1	-6.1	-6.4
중형주	709.97	1.0	-1.2	1.1	-0.7
소형주	2,858.07	1.4	-0.4	2.9	1.8
코스닥150	1,305.85	-0.7	-4.6	-6.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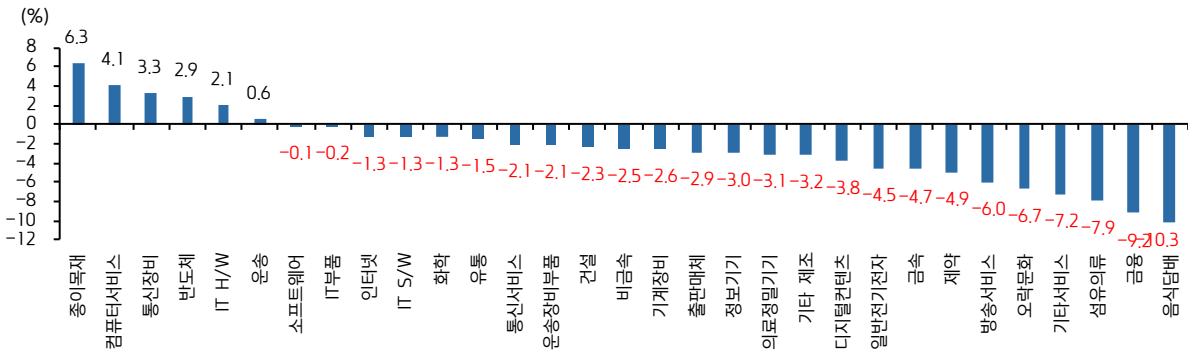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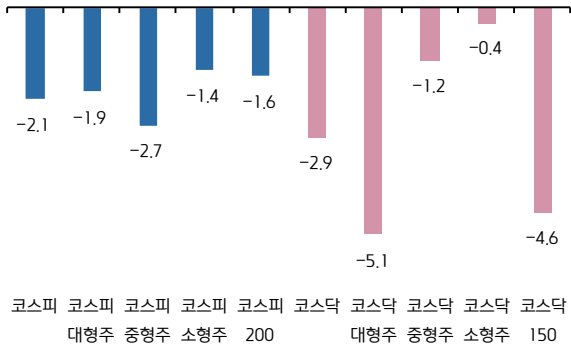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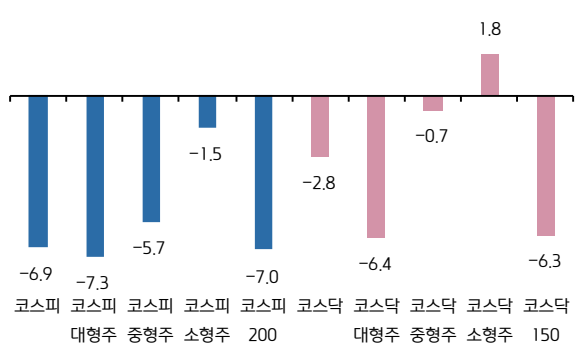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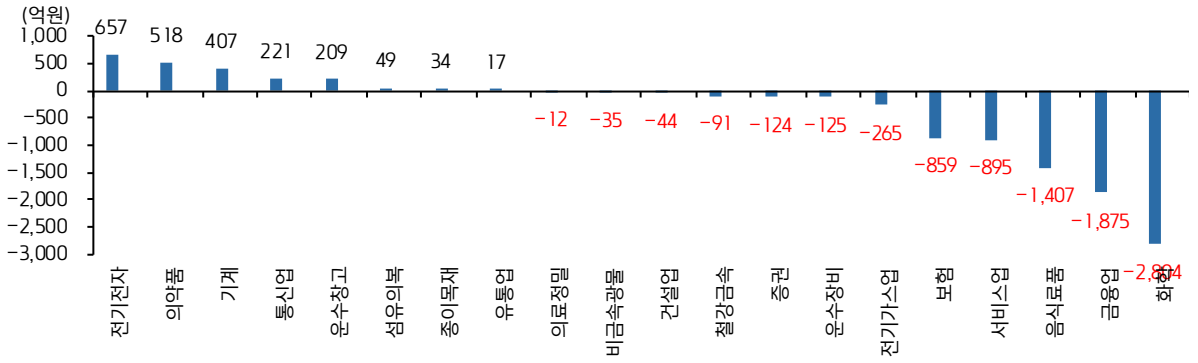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4,459,428	13,359	2.2
2	000660	SK 하이닉스	1,028,667	4,677	5.4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897,390	983	-7.1
4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48,040	506	3.5
5	005380	현대차	384,353	615	-2.3
6	068270	셀트리온	383,646	2,014	-10.6
7	000270	기아	352,191	786	-0.8
8	005490	POSCO 홀딩스	350,548	2,565	-7.6
9	035420	NAVER	349,991	1,707	-6.5
10	051910	LG 화학	285,546	1,449	-9.9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272,377	2,566	-8.4
2	086520	에코프로	148,050	1,858	-12.0
3	022100	포스코 DX	85,139	842	-8.1
4	066970	엘앤에프	69,886	2,477	3.3
5	028300	HLB	59,831	810	-0.4
6	196170	알테오젠	40,077	1,083	-20.3
7	403870	HPSP	39,600	813	14.4
8	068760	셀트리온제약	39,254	688	-8.5
9	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33,678	550	-2.6
10	058470	리노공업	32,009	23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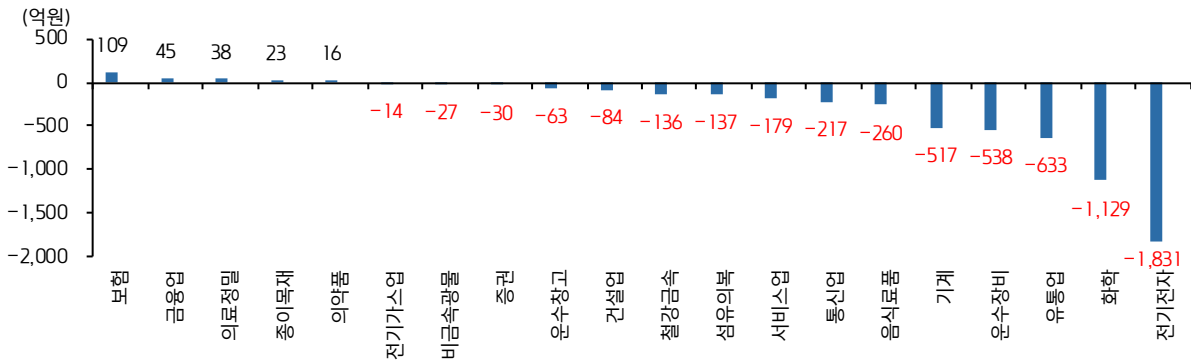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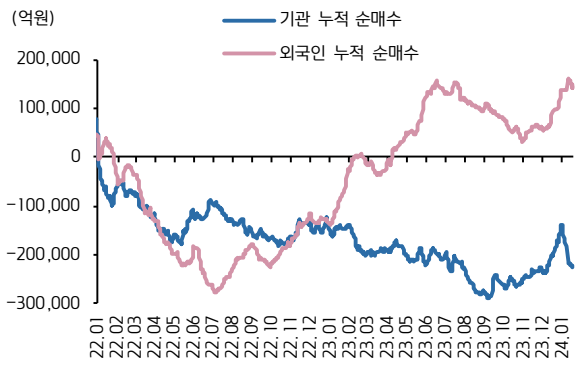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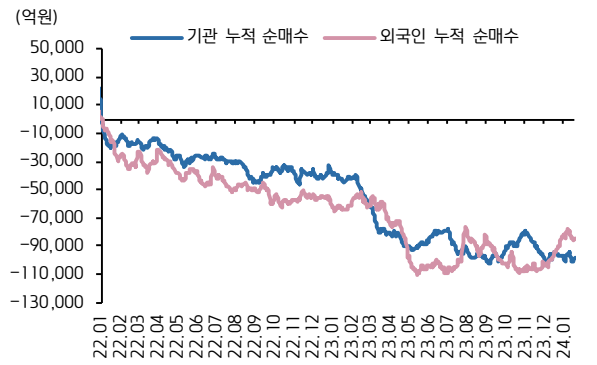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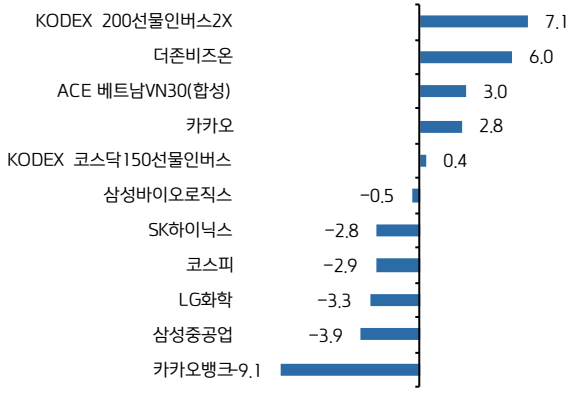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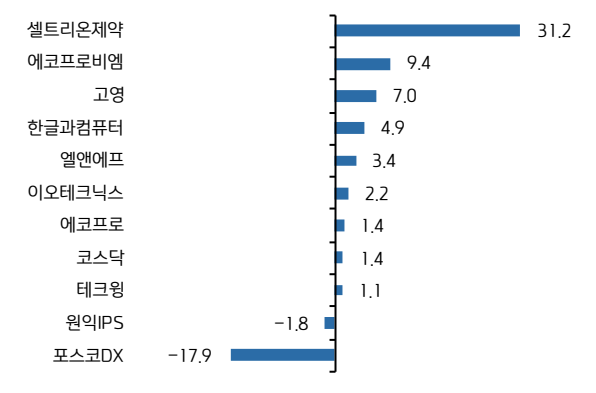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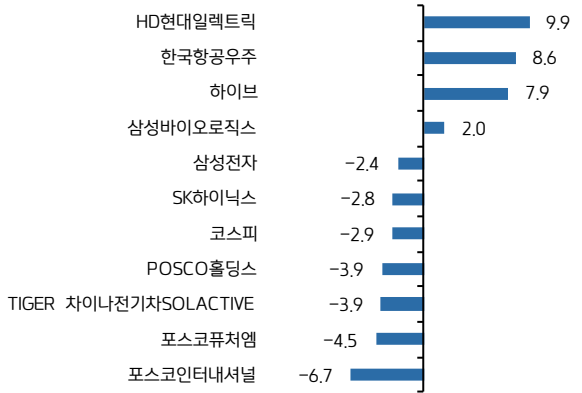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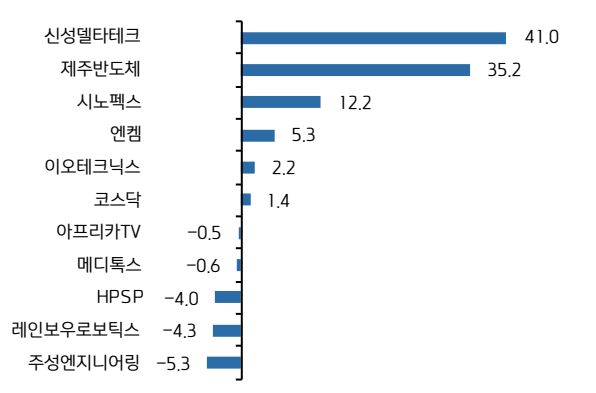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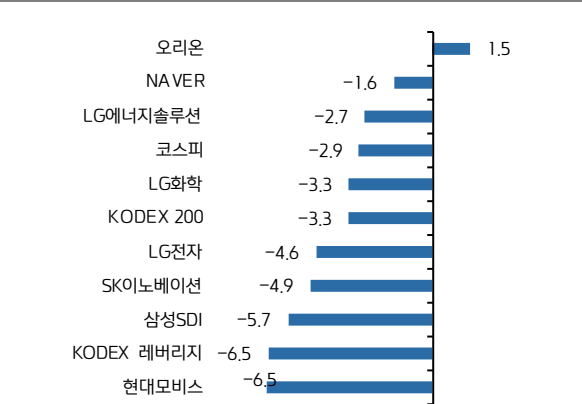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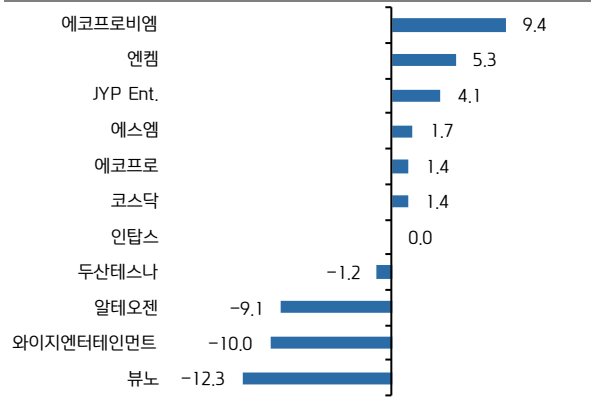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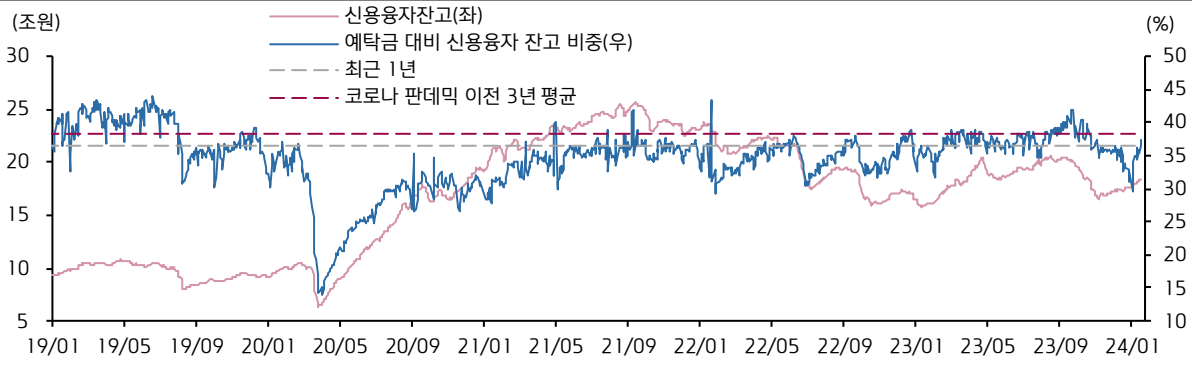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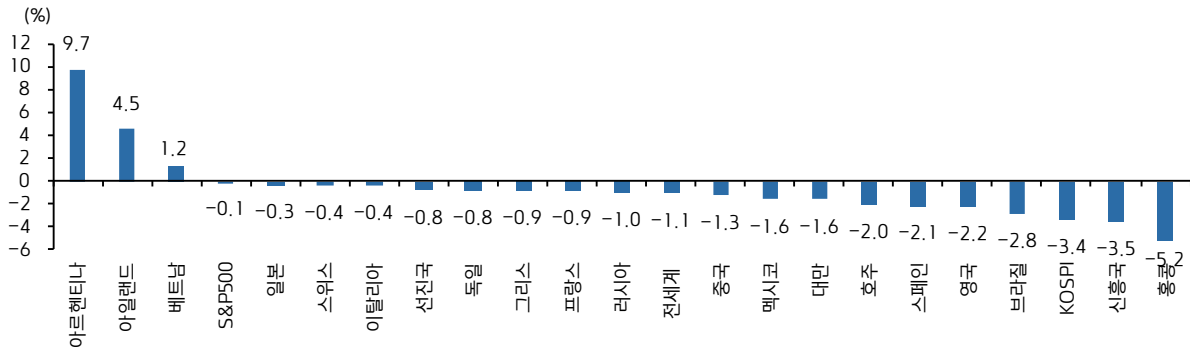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유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유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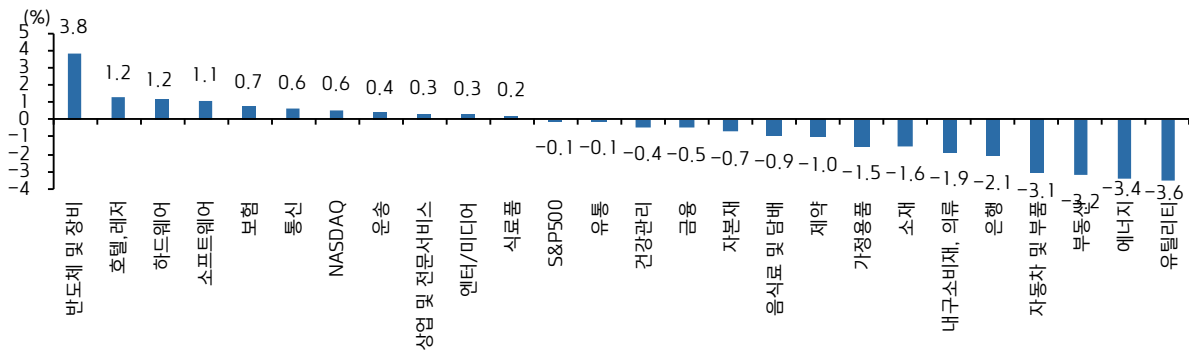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